약자 보호 신선, 사찰벽화로 남다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⑦ 조용한 카리스마, 여동빈(呂洞賓)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벽화 중 여동빈과 유자선(조선 후기).


영락궁 신선 벽화 중 여동빈과 종리권(중국 원대 13~14세기).

'조용한 카리스마'라는 신조어가 있다.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강한 기운을 뿜어내는 이를 지칭하는 용어다.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조용한 카리스마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모두를 집중시키는 사자후(獅子吼)를 비롯해 자비로우면서도 영웅의 면모까지 지닌 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문화권에는 풍기는 분위기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교는 어떨까? 앞서 우리는 익살맞은 신선 유해섬을 살펴봤다. 이번 편에서는 도교 문화 속 조용한 카리스마의 대표 주자인 신선 여동빈(呂洞賓)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동빈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여동빈의 본명은 여암(呂巖), 호는 순양자(純陽子)로 당(唐)나라 때 활동한 유학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검선(劍仙)과 여조(呂祖), 순양진인(純陽眞人)으로도 불리는 여동빈은 도교 팔선(八仙)의 리더 종리권(種離權)의 직계 제자인데, 그의 가르침을 받은 덕분에 신선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이에 여동빈 역시 종리권을 계승해 전진교(全眞教)의 교조를 맡았고, 평소에도 스승인 종리권을 극진히 모셨다고 한다.

여동빈이 압도적인 성격을 지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인의 기질을 지녔기 때문이다. 유학자 출신이면서 신선, 무인의 모습까지 하고 있다니, 여동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팔방미인, 요즘 단어로 '육각형 인간'으로도 부를 수 있다. 여동빈의 무예 가운데 단연 최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검선이라는 별명답게 검을 다루는 솜씨다. 화룡진인(火龍眞人)이라는 신선에게 무예를 배운 여동빈은 천둔검법(天遁劍法)이라고 하는 막강한 검술을 구사하는데 이 검술로 약자를 보호하고 악귀를 처단하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송(宋)나라 때 편찬된 〈능개재만록(能改齋漫錄)〉에는 여동빈의 자기소개 기록이 확인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일찍이 흰 난삼에 각대를 둘렀다. 오른쪽 눈 아래에는 사마귀가 하나 있는데, 마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젓가락 머리처럼 컸다."

이 말인즉슨 여동빈은 자신이 신선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인간의 외모와 다를 바가 없으며, 외모 콤플렉스가 될 수 있는 사마귀도 당당하게 말하는 소탈함과 겸손의 자세까지 보여주고 있다.

여동빈은 팔선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한 원(元)나라 미술로 표현된다. 이 가운데 원 말기에 건립된 도교 사원인 영락궁(永樂宮) 벽화가 가장 이른 여동빈 도상으로 알려져 있다. 미술로 표현되는 여동빈은 화양건(華陽巾)을 쓴 유자복 차림에 자신의 상징물인 보검을 든 단독상이나 스승 종리권, 팔선의 일원으로 등장하며 호남성(湖南省)에 위치한 동정호(洞庭湖) 물 위를 유유히 걷는 신선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정호를 걷는 여동빈은 우리나라 문인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는 여동빈이 유학자 출신인 점과 더불어 단아하고 고고한 자태, 조선시대 문인들이 동경의 장소로 생각한 동정호에 여동빈이 머물렀다는 부분에 매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으로 조선 중기 문인 윤선도(尹善道)의 〈고산유고(孤山遺稿)〉에는 여동빈을 "동정호 날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으며, 유몽인(柳夢寅)의 대표작인 〈어우집(於于集)〉에도 그의 별칭 중 하나인 순양진인을 언급하면서 동정호가 위치한 지명인 악양(岳陽)에 여동빈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여동빈은 여러 문학과 미술로 표현된다. 그런데 다양한 여동빈 도상을 살펴보면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도교 팔선 가운데 이 생명체를 동반한 신선은 여동빈이 유일한데, 마치 나뭇가지처럼 생긴 물체가 머리에 달린 특이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동빈이 데리고 있는 존재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는 유자선(柳子仙) 혹은 유수정(柳樹精)이라고 불리는 버드나무 정령이다. 이 정령은 버드나무 요괴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여동빈은 요괴 출신인 유자선을 어떤 이유로 데리고 있는 것일까?


왕중겸필 〈선진동자책(仙真童子冊)〉 중 종리권과 여동빈(중국 청대,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유학자 출신의 검술 뛰어난 팔방미인
검술로 약한 이들 돕고 악귀 처단해
관음 상징 버드나무 정령 유자선이 보필
통도사·용주사·흥국사 등서 볼 수 있어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여동빈과 버드나무의 상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여동빈의 호는 순양자, 별칭은 순양진인이었다. 여기서 양(陽) 자는 버드나무를 지칭하는 양(楊) 자와 발음이 같기에 문학과 미술 속 여동빈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버드나무가 함께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불교의 영향이다. 잘 알려져 있듯 불교의 버드나무는 관세음보살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이는 버드나무 가지에 정수(淨水)를 뿌려 역병을 퇴치했다는 인도 불교에서 유래됐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전해져 도교에 영향을 준다. 역병을 없애는 버드나무는 요괴로 변했고, 이를 정화하는 정수는 여동빈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명(明)나라 때 편찬된 도교 사전인 〈도연휘록(道緣彙錄)〉에는 여동빈과 유자선의 스토리가 기록돼 있다.

"여동빈의 집에 류(柳)라는 양자가 있었다. 여동빈이 도(道)를 배우고자 집을 떠났다. 이후, 도를 얻어 돌아와 버드나무 아래에서 그를 만났는데, 버드나무 귀신이 되어 있었다. 이에 여동빈의 영험함으로 그 본성을 찾게 했고, 세칭 유선(柳仙)이라고 칭한다."

여기서 새롭게 각색된 부분은 유자선이 본래 여동빈의 양자인 류라는 인물이었다는 부분으로, 이 이름 역시 버드나무를 지칭하는 류(柳) 자를 사용하고 있다. 신선이 되기 위해 길을 떠났던 여동빈은 오랜만에 집에 방문했는데 자신의 소중한 양아들인 류가 버드나무 요괴가 돼 버린 것이다. 이에 여동빈은 검술 대신 자신의 영험한 기운과 분위기로 류를 정화했고 이후 류는 유자선이라는 새로운 모습과 이름을 지닌 채 여동빈을 보필했다고 한다.

유자선 스토리는 위에서 살펴본 〈도연휘록〉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영락궁 벽화에 유자선이 표현돼 있기 때문이다. 미술로 표현되는 유자선은 여동빈의 검을 대신 들고 있거나 피리 연주를 하는 모습, 종리권과 여동빈의 차를 끓이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여동빈과 유자선의 동반은 조선에 전해진다. 두 부자지간이 미술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부터인데 이 시기는 불교와 도교 신선 이미지를 삽도(揷圖)로 실은 〈선불기종(仙佛奇踪)〉과 〈삼재도회(三才圖會)〉 등 백과사전류가 조선에 유입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김홍도(金弘道)와 김윤겸(金允謙), 윤덕희(尹德熙) 등 조선 미술계를 풍미했던 걸출한 화원들의 신선도에는 유자선을 동반한 여동빈의 모습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여동빈은 불교미술로도 표현된다. 양산 통도사와 화성 용주사, 남양주 흥국사 등 수많은 사찰벽화에는 유자선을 동반한 여동빈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전에 살펴본 유해섬의 사례처럼 도교와 불교문화의 교섭, 사찰을 방문한 민초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자 한 불교계의 따뜻한 배려인 것이다.

마치며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남에게 뽐내고 싶은 욕구를 늘 지니고 있다. 이것이 적당하면 뛰어난 자기 홍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럴 때 여동빈의 행보를 주목하자. 뛰어난 도술과 무술 실력으로 악귀를 섬멸하고 약한 이를 도와줬던 여동빈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인간과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언급하며 소탈한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우리가 신선 여동빈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동빈의 삶을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면 텅 빈 수레가 아닌 참된 인성과 능력을 지닌 내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김용덕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S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